

# 19세기 의방서 宜彙의 구성과 내용

오준호, 박상영<sup>1</sup>, 차웅석<sup>2</sup>

통일부 하나원, <sup>1</sup>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Study on Contents of Medical Text *YiHui* Written in 19th Century

Junho Oh, Sangyoung Park<sup>1</sup>, Wungseok Cha<sup>2</sup>

Ministry of Unifi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sup>1</sup>Center for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p>2</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YiHui*(宜彙) is medical book written in 19th century. It's author is known as an intellectual. His pen name is GumLiSanIn(錦里散人). *YiHui* is a important book to show us medical treatment in Chosun-Korea 19th century. We purposed to analyze contents of *YiHui* and organize its Historical meanings.

For that, we studied about GumLiSanIn. Then we explained contents of each chapter of this book. *YiHui* – title of book means gathering important treatment. Like that, this book contains a lots of skills and prescriptions originated from classic Chinese and Korean medical books. Many methods of this book are invented by practitioner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folk.

Furthermore, its treatments is very simple and its herbs is getatable to be used easily. *Yihui* inherits the tradition of Hyangyak that is local herb medicine of Chosun.

keywords : *YiHui*(宜彙), GumLiSanIn(錦里散人)

## I. 서론

저자 금리산인은 1800년대 중반 아직 서양의학의 영향이 조선사회에 미치지 이전에 활동했던 지식인이었다. 비슷한 시기의 의학자들과 의서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금리산인이 수집한 전통치료기술들은 『의학입문』, 『동의보감』, 『경약전서』, 『본초강목』 같이 16-17세기 종합의서와 『광제비급』, 『침구경험방』, 『주춘신방』 등 한국의 민간에서 주로

이용한 서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져 19세기 한의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의휘』의 구성과 내용을 고찰해 보고 의학적 의의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著者 錦里散人에 대하여

1)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學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3;16(1). pp.17-38.

■ 접수 ▶ 2010년 2월 26일 수정 ▶ 2010년 3월 22일 채택 ▶ 2010년 3월 25일

■ 교신저자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9446 Fax 02-961-0671 E-mail chawung@khu.ac.kr

『宜彙』는 조선 고종 때 錦里散人이 ‘近世名訣’과 ‘俗藥常方’ 중 자신이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을 모아 쓴 5권 5책의 필사본으로 된 醫方書이다. 題文에 ‘辛未季春下澣’이라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인 고종 8년(1871)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금리산인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쓰여진 내용을 통해 그는 향촌에서 활동한 지식인이었으며, 원래는 의학자가 아니었으나, 후에 의학관련내용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의학경험을 더해서 『의회』를 저술한 儒醫로 보여진다.

『小序』에는 “나는 늘그막에 여러 자식들 및 손자들과 함께 향촌에서 기거하였는데, 다만 질환에 시달려 항상 편치 못하였다. 매번 믿을 수 있다는 의원을 방문했을 때마다 촌구석의 식견이라 보잘 것 없기가 더하였으며, 전문성도 부족하였고 돈벌이에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 만약, 갑자기 병에 걸려 소중한 자신의 몸을 그러한 의원의 손에 맡겨야 한다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연유로 오랫동안 간수해오던 근세의 뛰어난 처방을 드러내고, 향약 가운데 여러 차례 약효가 검증되어 일상적으로 쓰이는 처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그 족족 처방을 빌려와 더해서 기록하고, 條門을 나누어 보기에 편하게 하여 ‘宜彙’라고 하였다. 가정에서 활용되어 널리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기를 바라나니, 이것이 곧 세상을 구제하는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sup>2)</sup>라고 되어 있어 저자의 배경과 이 책의 저술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 2. 宜彙의 구성과 내용

### 1) 구성

저자는 서문에서 ‘條分門類’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지만 다양한 임상경험을 기록하다보니 체재나 병증이 정연한 모습은 띠고 있지는 않고 일부 내용은 중복되는 경향도 다소 보인다. 제1~3권은 內外傷과 雜病으로 꾸며진 본편이다. 주로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및 舟村 申曼과 許任의 『經驗方』에서 채록한 것이 많다.

2) 錦里散人. 『한국의학대계 28, 宜彙』, 여강출판사. 1992. pp.1-3. 『宜彙小序』, “余老境也, 携諸兒孫, 棲於江湖, 惟疾之憂, 恒兢兢焉. 每訪問醫家之可信用者, 村野耳目, 凡陋益甚, 業之不精而驚於眩霧. 若一朝遇病, 千金之軀, 聽於其手, 豈不殆哉? 因出舊藏近世名訣, 問於人有俗藥常方之屢經驗者, 輒借而合錄之, 條分門類, 以便省閱, 名之曰宜彙. 蓋欲用之家而旁推及人, 抑可爲濟施之一端歟!”

제4권은 痘瘡, 紅疫 등 전염병에 대한 여러 종류의 서적을 모아 놓은 것이다. 『痘瘡經驗方』, 『攷事撮要』의 두창방, 『痘瘡方拾遺』, 『保嬰堂出痘經驗簡易良方』 등과 『홍역경험』, 『마진경험』, 李獻吉의 『紅疹方』, 『壬戌經驗方』, 『治紅疫方』, 그리고 『任主簿彥國遺方』, 『桃源秘訣』, 任應浩의 『老人撮養方』 등을 일일이 적어 놓았다. 제5권은 속편으로 『廣濟秘笈』의 ‘消渴’로부터 ‘鄉藥單方治驗’까지를 전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빠뜨린 내용들을 습유에 모아놓았는데, 丁若鏞의 怪疾經驗方, 宋尤庵의 小食不飲記 등과 같은 이채로운 내용들도 있다.<sup>3)</sup>

책의 구성을 卷에 따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卷之一：風寒附四時感冒 傷寒 中寒 瘟疫 暑濕 燥火 內傷 傷食 鬱症 痰飲 咳嗽 喘急 哮喘 瘧疾 二日瘧 痢疾 泄瀉 霍亂 嘔吐 翻胃 呃逆 暖氣 吞酸 嘈雜 諸氣 痞滿 鼓脹 水腫 積聚 五疳 痼冷 斑疹 發熱 補益 虛勞 失血

卷之二：惡熱 惡寒 汗症 眩暈 麻木 癲狂 癩疾 健忘 驚悸 怔忡 虛煩 不寐多睡 邪祟 厥疾 濁症 遺精夢泄 淋症 結核 梅核氣 癭瘤 肺癰 肺痿 心痛 腹痛 腰痛 脅痛 臂痛 背痛 痛風 脚氣 癩癧 瘰癧 消渴 關格 遺溺 小便閉 大便閉 大小便俱閉 痔漏 體氣 脫肛 諸蟲 頭痛 鬚髮 面病 耳病 婦人 小兒

卷之三：癰疽 瘰癧 連珠 疔瘡 腫丹 諸傷 破傷風 諸毒 口舌 蠶唇 牙齒 眼目 咽喉 鼻病 瘰 恠症 奇疾

卷之四：痘瘡 紅疹 治瘡方附 桃源秘訣 老人撮養方 救急 相忌物 雜方

### 2) 내용

#### (1) 『宜彙』 1권

『의회』 1권은 풍, 한, 서, 습, 조, 화의 육기로 인해 병이 되는 질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목차의 배열은 『의학입문』 『잡병분류』의 목차순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구성내용은 『의학입문』에서 의학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의회』에서는 민간에서 흔히 사용하게 될 구체적인 치료법들을 정리하였다.<sup>4)5)</sup>

3) 안상우. 『고의서산책 42, 宜彙』. 민족의학신문. 2000.8.21.

4) 차웅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 pp.189-248.

5)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가장 앞의 세부항목은 병에 대한 전반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수록하여,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세부항목은 皮膚搔痒, 搔痒, 痒痛搔痒 등 비슷한 이름의 항목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이름의 세부항목도 보인다. 이것은 저자가 분류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유용한 치료법을 모으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치료법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단방요법이 위주로 되어있지만, 기성처방의 내용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있다. 치료법을 기술한 말미에 ‘舟’[『주춘신방』], ‘許’[『침구경험방』] 등 출전에 대한 표기도 종종 보인다.

[예문] 중풍 中風

중풍에는 형개수를 곱게 가루 내어 2돈씩 술에 타서 복용한다. 【중풍에 복용하면 곧 낫는데, 중풍 이전이나 이후에 매우 효험이 있다.】 「허」 ○석창포·독활·천마·오가피 같은 양을 달여 복용한다. 「허」 ○자단향탕(紫檀香湯)에 백반·황랍을 약간씩 섞어 복용한다. 「허」 중풍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생배즙을 복용한다. 「허」 ○황백을 잘게 썰어 술이나 물 6되에 넣고 달여 2되가 되면 조금씩 복용한다. 「허」 ○부추즙 1-2중지[鍾子]를 몇 차례 부어준다. 「허」 ○세신을 달여 복용한다. 【풍부·삼리·상성·삼추·오추골 위에 각 7장씩 뜸을 뜬다.】 (中風, 荊芥穗細末, 每二錢, 酒調服. 【凡中風者, 服之, 立愈, 前後甚驗.】 「許」 ○石菖蒲·獨活·天麻·五加皮等分, 煎服. 「許」 ○紫檀香湯, 白礬·黃蠟各少許, 和服. 「許」 中風失音不語, 生梨汁服之. 「許」 ○黃柏細切, 用酒或水六升, 煮取二升, 稍服. 「許」 ○韭汁一二鍾子, 灌之數次. 「許」 ○細辛煎服. 【風府·三里·上星·三椎·五椎骨上, 各七壯.】)

風 : 風, 風病, 卒中風 등 52개 세부항목 수록됨.  
 傷寒 : 傷寒, 陰證陽證, 傷寒三日陽證, 陰證 등 89개 세부항목과 부록으로 中寒에 관한 세부항목 6개, 溫疫에 관한 세부항목 58개가 붙어있고, 疫氣를 물리치는 부적그림 7폭이 실려있음.  
 暑 : 暑, 暑症, 暑癘, 伏暑 등 41개 세부항목 수록됨.  
 濕 : 濕病, 濕瘡, 一身陣痛 등 33개 세부항목 수록됨.  
 燥 : 燥, 燥證, 皮膚搔痒, 搔痒 등 17개 세부항목 수록됨.  
 火 : 火, 治火藥, 火病 등 15개 세부항목 수록됨.  
 內傷 : 內傷, 傷食, 食傷 등 32개 세부항목 수록됨.  
 食傷 : 食傷, 食滯, 滯胃症 등 70개 세부항목 수록됨.  
 鬱蒸 : 五鬱, 諸鬱火, 食鬱 등 12개 세부항목 수록됨.

痰飲 : 痰飲, 痰牽引, 牽引 등 53개 세부항목 수록됨.  
 咳嗽 : 咳嗽, 天行咳嗽, 咳嗽 등 43개 세부항목 수록됨.  
 喘急 : 喘急, 氣喘, 喘促 등 27개 세부항목 수록됨.  
 哮喘 : 哮喘, 哮喘, 哮喘, 哮喘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癰疾 : 癰疾, 癰, 初癰, 初癰氣癰 등 44개 세부항목 수록됨.  
 학질에 쓰는 부적그림 5폭 수록됨.  
 二日學 : 唐癰, 長癰邪癰, 噎言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痢疾 : 痢疾, 痢, 痢, 赤白痢 등 63개 세부항목 수록됨.  
 泄瀉 : 泄瀉, 泄瀉, 久不止 등 50개 세부항목 수록됨.  
 霍亂 : 霍亂, 吐痢大作, 吐瀉 등 62개 세부항목 수록됨.  
 嘔吐 : 嘔吐, 嘔逆而吐, 乾吐 등 18개 세부항목 수록됨.  
 翻胃 : 噎不下, 反胃, 反胃 등 13개 세부항목 수록됨.  
 呃疫 : 吃逆呃疫, 久病咳逆 등 22개 세부항목 수록됨.  
 噎氣 : 噎氣, 膈氣不下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吞酸 : 吞酸, 食後吐酸, 食物酸心 등 10개 세부항목 수록됨.  
 粗雜 : 粗雜, 血虛粗雜, 粗雜, 血虛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諸氣 : 氣痛, 滯氣虛, 積頭痛 등 22개 세부항목 수록됨.  
 痞滿 : 痞滿, 痞滿, 胸痞 등 18개 세부항목 수록됨.  
 鼓脹 : 鼓脹滿, 諸脹, 鼓脹 등 18개 세부항목 수록됨.  
 水腫 : 水腫, 浮, 浮腫 등 34개 세부항목 수록됨.  
 積聚 : 積聚, 積聚, 治痰飲氣血食積 등 35개 세부항목 수록됨.  
 黃疸 : 黃疸, 黃疸, 癰疫發 등 31개 세부항목 수록됨.  
 癩冷 : 癩冷, 冷腹痛, 冷塊 등 20개 세부항목 수록됨.  
 斑疹 : 斑疹, 紅癩疹, 白癩疹 등 31개 세부항목 수록됨.  
 發熱 : 虛勞煩熱, 四肢熱, 氣虛發熱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補益 : 橘貝腎氣湯, 珍果八味丹 등 30개 세부항목 수록됨.  
 虛勞 : 虛勞, 虛勞, 氣血虛 등 24개 세부항목 수록됨.  
 失血 : 失血吐血, 吐血, 吐血 등 93개 세부항목 수록됨.  
 뒤쪽에 책 본면이 아닌 표지안쪽에 쓰여진 글로 추정되는 운기관련내용이 붙어있음. 내용은 三陰三陽, 十二支方位, 少補湯에 관한 내용임.

(2) 『宜彙』 2권

『의회』 2권의 내용은 1권에 이은 병증별로 치료법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다. 앞쪽에는 1권에서 빠진 병증을 나열하였고, 뒷부분에는 부인병과 소아병과 관련된 증상을 모아서 기술하였다. 병증을 기술하는 방식은 1권에서와 같이 맨 앞의 세부항목에서 이론적인 간략한 설명을 달았고, 이어서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 pp.111-127.

각각의 치료법을 기술한 방식이다. 치료법의 내용도 전문처방보다는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1권에서처럼 세부항목의 명칭은 중복되는 것들도 종종 보이며, 증상의 세밀한 분류보다는 유용한 치료법의 수집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惡熱：惡熱 1개 세부항목 수록됨.  
 惡寒：惡寒 1개 세부항목 수록됨.  
 汗症：盜汗, 盜汗, 盜汗不止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眩暈：眩昏, 眩症時時, 風眩 등 14개 세부항목 수록됨.  
 麻木：手足麻木, 一切麻木 등 24개 세부항목 수록됨.  
 癲狂：癲狂, 發狂吐沫, 癲狂 등 10개 세부항목 수록됨.  
 癩症：癩疾, 癩疾猝發, 諸癩 등 8개 세부항목 수록됨.  
 健忘：枕中方, 讀書丸 등 8개 세부항목 수록됨.  
 驚悸：心虛驚悸, 大驚不語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怔忡：怔忡, 產後虛怯 등 10개 세부항목 수록됨.  
 虛煩：虛煩, 女人大怒虛煩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不眠：痰火不睡, 昏困不睡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邪祟：怪邪跨胸, 邪疾, 邪祟 등 9개 세부항목 수록됨.  
 厥病：厥病, 寒厥熱厥, 血厥 등 9개 세부항목 수록됨.  
 濁疾：白濁, 赤白濁, 白濁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遺精：遺精夢泄, 遺精 등 9개 세부항목 수록됨.  
 淋症：淋病, 第一方, 諸淋 등 24개 세부항목 수록됨.  
 結核：痰核, 結核, 痰核 등 19개 세부항목 수록됨.  
 梅核氣：梅核氣 1개 세부항목 수록됨.  
 癭瘤：癭瘤, 痰癭血瘤, 怪癭 등 9개 세부항목 수록됨.  
 肺癰：肺癰, 肺癰聖藥 등 2개 세부항목 수록됨.  
 肺痿：久咳肺痿 1개 세부항목 수록됨.  
 心痛：心腹熱痛, 心痛, 心痛 등 16개 세부항목 수록됨.  
 腹痛：腹痛, 腹痛, 怪腹痛 등 54개 세부항목 수록됨.  
 腰痛：腰痛, 腰痛山, 壓打瘀血 등 25개 세부항목 수록됨.  
 脇痛：脇痛, 左右脇, 左脇 등 17개 세부항목 수록됨.  
 臂痛：肩臂痛, 肩臂猝痛 등 19개 세부항목 수록됨.  
 背病：背病, 背寒熱, 背寒痰 등 14개 세부항목 수록됨.  
 痛風：歷節風, 白虎風, 歷節 등 8개 세부항목 수록됨.  
 脚氣：脚氣, 脚氣, 水腫脚 등 37개 세부항목 수록됨.  
 癩疔：疔, 疔症, 疔症 등 37개 세부항목 수록됨.  
 癩瘻：癩瘻, 血虛氣虛 등 2개 세부항목 수록됨.  
 消渴：消渴上中下, 三消 등 23개 세부항목 수록됨.  
 關格：關格, 肉格暑格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遺溺：小便, 小便不禁 등 22개 세부항목 수록됨.  
 大便閉：大便, 大便不通 등 17개 세부항목 수록됨.

大小便閉：大小便不通, 膈脹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痔漏：痔疾, 內痔, 外痔 등 29개 세부항목 수록됨.  
 體氣：腋氣, 腋臭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脫肛：內治外治, 脫肛神方 등 14개 세부항목 수록됨.  
 諸蟲：蛔, 積年蛔, 蛔積 등 27개 세부항목 수록됨.  
 頭痛：頭痛, 中風頭項急 등 43개 세부항목 수록됨.  
 鬚髮：烏鬚髮, 毛髮脫落 등 16개 세부항목 수록됨.  
 面病：面病, 面癢浮 등 27개 세부항목 수록됨.  
 耳病：耳病, 耳塞, 耳聾 등 63개 세부항목 수록됨. 뒤편에 ‘胎中聖藥’에 관한 내용 6개 조문이 삽입되어 있음. 원래는 다음 항목인 ‘婦人’에 들어갈 내용인 듯한데, 필사의 오류라기보다는 ‘이병’을 저술하고 남은 여백에 ‘부인’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여짐.  
 婦人：月經不通, 月經來無定時 등 26개 세부항목 수록됨.  
 帶下：赤白帶下, 帶下崩中 등 8개 세부항목 수록됨.  
 虛勞：產後虛勞諸般怪疾 등 1개 세부항목 수록됨.  
 求嗣：不得受胎, 腹不安不能胎 등 11개 세부항목 수록됨.  
 妊娠：孕七湖雜病虛弱胎動, 胎動 등 66개 세부항목 수록됨.  
 保產：胎已轉不即產, 經日不出 등 24개 세부항목 수록됨.  
 下胎死：死胎不下, 死胎 등 15개 세부항목 수록됨.  
 小產：半產, 胎死橫倒 등 9개 세부항목 수록됨.  
 產後：產後有塊, 血塊 등 33개 세부항목 수록됨.  
 產後諸症：陰脫, 胞門突出 등 44개 세부항목 수록됨.  
 產前後宜用藥方：主墮胎合易產, 橫逆產子死腹中 등 28개 세부항목 수록됨.  
 乳病：乳病, 乳汁不足 등 23개 세부항목 수록됨.  
 乳巖：乳巖 1개 세부항목 수록됨.  
 婦人諸病：婦人諸病, 前陰胞火隨時上衝 등 40개 세부항목 수록됨.  
 小兒：小兒, 初生氣欲絕 등 29개 세부항목 수록됨.  
 急驚風：急驚, 未滿月驚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慢驚風：慢驚, 欲成慢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急慢驚通用：急慢吐瀉, 慢急 등 2개 세부항목 수록됨.  
 驚心總論：驚主風, 驚有四症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疔疾：口疔瘡, 疔疾, 齒疔 등 38개 세부항목 수록됨.  
 熱症：胎熱, 胎熱, 燥熱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癍積：諸邪作癍, 疔積, 癍癍 등 8개 세부항목 수록됨.  
 感冒：感寒, 暑感 등 2개 세부항목 수록됨.  
 傷食：傷食浮脹, 過食腹飽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腹脹：腹痛腹脹, 腹痛, 腹脹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嘔吐：吐乳，兒口逆，吐不定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泄瀉：泄瀉，暑症泄瀉，泄瀉 등 4개 세부항목 수록됨.  
 吐瀉：吐瀉欲成慢 吐瀉 등 3개 세부항목 수록됨.  
 痢疾：痢疾，赤白痢，赤久痢 등 5개 세부항목 수록됨.  
 瘡疾：腹瘡，初瘡，腹瘡 등 11개 세부항목 수록됨.  
 咳嗽：感痰咳，咳嗽，咳 등 4개 세부항목 수록됨.  
 喘急：肺主喘痰喘，痰喘，咳逆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小兒諸病總論：諸病通治，胎毒 등 116개 세부항목 수록됨.

(3) 『宜彙』 3권

『의휘』 3권의 내용은 2권에 이어 병증별로 치료법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다. 2권에서 부인과질환과 소아과질환에 이은 응저 등의 외과질환에 관한 내용과 앞쪽에서 일부 언급한 얼굴의 감각기관에 대한 질환이 묶여져 있다. ‘癰疽’, ‘瘰癧’, ‘疔瘡’, ‘腫丹’, ‘諸傷’ 등 외과병증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1권, 2권에서와는 달리 여러 개의 세부항목을 하나의 항목 아래 한꺼번에 두서없이 모아놓았다. 치료법의 내용은 물론 전문처방보다는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1권과 2권에서처럼 세부항목의 명칭은 중복되는 것들도 종종 보이며, 증상의 세밀한 분류보다는 유용한 치료법의 수집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癰疽：癰疽，諸痛瘡瘍 등 81개 세부항목 수록됨.  
 瘰癧：瘰癧 先從結喉，先從項上起 등 27개 세부항목 수록됨.  
 疔瘡：疔瘡，疔疽，紅絲 등 225개 세부항목 수록됨.  
 腫丹：痰腫，腫久不合，初頭 등 146개 세부항목 수록됨.  
 諸傷：杖瘡，被打不痛方，杖瘡 등 195개 세부항목 수록됨.  
 破傷風：破傷風，外邪初入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諸毒：諸中毒，人食蜈食物，吐下血 등 123개 세부항목 수록됨. 뒤편에 나중에 필사해서 보입해 넣은 것으로 보이는 勳鼻散에 관한 내용이 첨부됨  
 口舌繭唇：口舌繭唇，口瘡 등 93개 세부항목 수록됨.  
 齒牙：齒痛，蟲齒，齒痛 등 41개 세부항목 수록됨.  
 眼目：眼目，眼病眼疾 등 133개 세부항목 수록됨.  
 咽喉：咽喉，喉痺單蛾雙蛾 등 80개 세부항목 수록됨.  
 鼻病：鼻瘡，鼻中瘡，自腐瘡 등 35개 세부항목 수록됨.  
 瘡：外感風邪痰火發瘡，氣血虛脫，風瘡 등 6개 세부항목 수록됨.  
 愧症：肉癢，酒癢，鼈癢 등 27개 세부항목 수록됨.

(4) 『宜彙』 4권

『의휘』 4권의 내용은 천연두[痘瘡], 홍역 등 당대 주요 전염병에 대한 내용과 이상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내용을 엮은 부분이다. 치료법의 내용은 물론 전문처방보다는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고, 향간에 알려진 유명한 치료기술들을 통째로 삽입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두창』에서는 痘瘡禁忌, 初熱三朝, 出痘三朝, 起脹三朝, 貫膿三朝, 收斂三朝 등 『동의보감』 등에서 전통적으로 두창을 기술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고 각 항목아래에 구체적인 방법과 치료방법, 치료처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뒤에 두창 후에 생기는 인후, 요복통, 경축, 구토, 설사 등 제반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임신부의 두창을 수록하였으며 두창에 대한 예후와 감염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어서 두창 및 홍역에 관해 저자가 수집한 내용을 신고 있는 부분이 이어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痘瘡方 此在攷事提要 (『고사촬요』에 있는 두창방)
2. 痘瘡方拾遺 (두창방습유)
3. 保嬰堂出痘經驗第一簡易良方 (보영당의 『출두경험방』)
4. 紅疫經驗 楊根李雅哲愚甫所編 (양근 이아철 우보가 엮은 『홍역경험방』)
5. 麻疹經驗 (『마진경험』)
6. 紅疹方 南陽李獻吉所錄 (남양 이헌길이 지은 『홍진방』)
7. 紅疹新方 壬戌洪陽智旭浩李元豐安載運相議所錄 (1802년 양지현감 홍옥호, 이원풍, 안재운이 상의하여 기록한 『홍진신방』)
8. 壬戌經驗方 (1802년 후 1862년 『경험방』)
9. 紅疹新方 (『홍진신방』)
10. 治紅疫方下編 此乃自嶺南得來者，與上編大同小異，用藥時參看 (홍역을 치료하는 방법하편 이것은 영남 지역에서 구해온 것으로, 상편과 대동소이한데, 약을 쓸 때 참고해야 한다.)
11. 紅疹治法 (홍진치법)

이상으로 두창과 홍역에 관한 수집한 내용의 다음에는 진역에 대한 내용[疹疫總論]에 이어 종기치료방이 다시 나온다. 여기에는 조선중기의 종기치료전문인 任彦國의 종기 치료처방이 소개되어있고 처방의 이름은 任主簿彦國方이

다.6) 桃源秘訣은 桃源龜齡延年丹을 만드는 방법을 시구의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으로서 ‘靖和庚子, 八月下浣, 南溟山人, 蛟螭謹識’이라는 판지가 붙어있다. 이어 남원의 임응호가 정리했다고 되어있는 老人攝養方이 붙어있으며 救荒, 救急, 相忌物, 藥性, 雜方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한 내용이 이어진다.

(5) 宜彙續篇

의회 5권에 해당하는 의회속편은 저자가 『광제비급』을 주로 참고했다고 하였다. 병증의 분류는 잡병, 부인, 소아, 외과의 형태로 본문의 계통은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분류는 다소 정돈되지 않은 형태이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모든 병증을 포괄하고 있다. 치료법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방약, 침구치료들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전문처방에 관한 내용도 종종 등장한다. 두진에 대한 설명다음에는 향약단방치험 49종에 대한 치험례를 정리하였다. 이 치험례에 대한 내용은 이경화가 『광제비급』을 저술할 때 『본초강목』의 단방치험례에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위주로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들이다. 단방약 뒤에는 향약명을 달아서 민간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 특징이다.7)

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

韭菜【付瘡부치】, 香附子【스초썰히】, 蒲黃【부들꽃】, 香油【참기름】, 鼠粘子【우영씨】, 杏仁, 硫黃【석유황】, 人參, 大黃【장군풀】, 浮萍【못세난부평】, 生薑, 蒼耳【썩고마리】, 桃仁, 麻子【삼씨】, 當歸, 絲瓜【슈세외】, 牡鼠尿【슈쥐똥】, 葱白【파뿌리흰것】, 蓖麻子【아쭈가리씨】, 井華水, 亂髮【머리털】, 黃柏, 冬瓜【동외】, 頭垢【스름의머리서】, 大蒜【큰마늘】, 白礬, 百沸湯, 竹瀝【참디기름】, 大豆【굴근콩】, 蕨靈仙【어영】, 人尿【스름의오줌】, 苦蔘【쓴너삼】, 荊芥【형기】, 黃土, 田螺【울영이】, 小豆【분근조팻】, 忍冬【계우스리】, 人尿【스름의오줌】, 百草霜, 蛇床子【쥐른출】, 地龍尿【지룡의똥】, 樑上塵, 馬齒莧【쇠비름】, 石菖蒲【돌밭테난것】, 食鹽【소금】, 艾【참뽕】, 紫蘇葉【차죽니땀】, 伏

龍肝【숫맛테호리】, 梟角【당쥐염여름】

(6) 宜彙拾遺 및 기타

의회습유는 『의회』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부분으로, 원문의 총 15면에 해당하는 짤막한 내용이다. 저자가 빠뜨린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회습유 뒤편에 『손자병법』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실고 있다. 전통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군사를 부려서 적을 물리치는 방법에 비유하곤 하였기 때문에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의회』에 실린 병법의 내용은 ‘謀功’과 ‘兵勢’, ‘虛實’에 관한 내용이다.

III. 결론

이 책의 저자 금리산인은 19세기 중반 활동했던 지식인이다. 그는 일반 의서에 실려 있는 처방뿐만 아니라 당시에 음으로 양으로 전수되던 치료기술들까지 다양하게 수록함으로써, 저서의 이름인 ‘宜彙(마땅히 모아두어야 할 것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양한 치료기술을 채록해가는 과정에서 저자의 애초의도였던 ‘條分門類’의 정연한 형태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서의 중간중간에 자주 보이는 머리주석【頭註】와 작은 주석【小註】의 삽입은 유력한 치료기술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저자의 배려를 엿볼 수 있다.

구한말 및 일제시대 간행된 한의방서는 시기별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것, 하나는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후의 것이다.8) 이 두 종류의 의방서의 공통점은 물론 한국한의학의 정수를 선별하고 정리했다는 점이겠지만, 후자의 것이 서양의학의 거대한 조류에 나름대로 적응해가면서 조선의 전통의학의 정수를 정리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방약합편』(1884년 간행)과 『수세현서』(1904년 간행)가 비교전 전자에 속한다면, 『수세비결』(1929년 간행), 『수진경험신방』(1913년 간행)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의회』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 시기에 속하는 의서들 중에 『의회』가 다른 『방약합편』, 『수세현서』 등과 다른 점이라면 보다 민간에서 소용되기 쉬운 치료기술들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며, 위 의서가 복합방 위주의 고급치료기술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의회』는 단방요법이며

6) 서지연, 김남일, 『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 『治腫秘方』과 『醫林撮要』, 『東醫寶鑑』, 『田園必考』, 『鍼灸經驗方』, 『宜彙』, 『治瘡方』, 『鍼灸集成』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 pp.34-41.

7) 차웅석, 박찬국. 『『廣濟秘笈』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10(2). pp.92-113.

8) 孟雄在 等(編).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pp.400-403.

나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들로 이루어진 복합방 등 의사의 진단과 치료없이도 쉽게 써볼 수 있는 치료법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의학의 특징을 ‘鄕藥醫學’의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救急方’류의 의서를 통해 이어져왔고,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향약의학 의방서는 『광제비급』이 있고 『의회』도 그 전통을 잇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IV. 참고문헌

1.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2. 彭懷仁 等(編). 『中醫方劑大辭典』. 南京中醫學院.
3. 李梴. 『醫學入門』. 高麗醫學社(影印本). 1989.
4.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出版社(影印本). 1998.
5. 張介賓(著). 안영민(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2006.
6. 金永勳. 『壽世玄書』. 대성의학사. 2006.
7. 안상우 등(편). 『국역 수세비결 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8. 錦里散人. 『한국의학대계 28. 宜彙』. 여강출판사. 1992.
9. 孟雄在 等(編).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10.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學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3;16(1).
11.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
12. 차웅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
13. 서지연, 김남일. 『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 『治腫秘方』과 『醫林撮要』, 『東醫寶鑑』, 『田園必考』, 『鍼灸經驗方』, 『宜彙』, 『治腫方』, 『鍼灸集成』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
14. 차웅석, 박찬국. 「『廣濟秘笈』에 對한 書誌學的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10(2).
15. 안상우. 「고의서산책 42, 宜彙」. 민족의학신문 2000.8.21.
1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